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89호

2026년 2월 22일(가해)

<p>미사 안내</p>	<p>평일</p>	<p>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p>	<p>주일</p>	<p>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p>
<p>연령회</p>		<p>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p>		



오늘의 미사

사순 제1주일

<p>▶ 1독서 : 창세기 2,7-9; 3,1-7</p> <p>▶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p> <p>▶ 2독서 : 로마서 5,12-19</p>	<p>▶ 복음 환호송</p> <p>◎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p> <p>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p> <p>▶ 복음 : 마태 4,1-11</p>
--	---

성가 ▶ 입 당: 115 ▶ 봉헌: 215, 216 ▶ 성체: 169 ▶ 파견: 123

① 3월 15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3월 15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3월 봉성체 안내

3월 봉성체는 3월 19일(목, 오전) 서쪽 지역, 3월 20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3월 15일~21일)

⑤ 매월 넷째 주 2월 22일(일) '한끼 나눔'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 교육분과 교리교육 공지

- 2월 22일(일): 영원한 삶
- 견진교리 기간: 3/1/26-3/22/26 (총 4회)
- 시간: 매주(주일) 오전 9시 /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구역 및 단체

① 하와이카이 구역 모임

일시: 2월 22일(일) 오후 6시
문의: 김글라라 349-2654

② 마우나케아 구역 모임

일시: 2월 28일(토) 오전 11시
문의: 김수정 카타리나 381-7858

③ 사목평의회 모임

일시: 3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교리실

④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3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⑤ 가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3월 8일(일) 오후 5시
문의: 황마리아 220-0822

⑥ 쉐렉 구역 모임

일시: 3월 10일(화) 오후 3:30
문의: 이명노 비오 227-5630

※ 사순기간 중 교중미사 시작 1시간 전 (토요일 4시미사 시작 30분전, 새벽미사는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십자가의 길 담당 분과 단체 (준비물: 기도서)

2월 22일(일)	사순 제 1주일	전례분과
3월 1일(일)	사순 제 2주일	명도회
3월 8일(일)	사순 제 3주일	시설분과
3월 15일(일)	사순 제 4주일	청소년분과
3월 22일(일)	사순 제 5주일	홍보분과
3월 29일(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교육분과
4월 3일(금)	성 금요일 (오후 6시)	선교분과

기타공지

※ 고하식품에서 설 떡국떡을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청소년 모임 AOG 빙고 게임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이성환 그레고리오, 백지혜, 홍윤택 프란치스코, 김대준 베드로, 박영조 요한, 남 스텔라, 서 안나, 구 에스터, 김춘모 안드레아, 박 레오, 박영선 마르타, 김 글라라, 양 요세피나, 윤 엘리사벳, Tony Ji, 이샬린, 이 돈보스코, 김 그레이스, 배 빅토리아, 홍 프란치스코, 우미현 글로리아 심소영 크리스티나, 안희순 데레사, 김옥순 데레사, 김신애 아네스, 최혜진 안젤라, 박영미 마리아 막달레나, 허은혜 레지나, 박철홍 미카엘



헌금

3월 14/15일 Catholic Relief Services 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월 14/15일: \$8,620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34명
	주일헌금 \$3,799	교무금 \$4,800	2차헌금 -	특별헌금 \$21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미사: 말씀 전례(2) 말씀 전례의 의미

미사의 두 중심축은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입니다. 이 두 가지 전례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적지 않게 “성찬 전례가 중요합니다.”라는 답변을 들곤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예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성찬례 모두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례에 대한 부분은 성찬 전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만 생각하기도 하지만,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55항에 의하면 말씀 전례 자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말씀 전례의 중심 부분은 성경에서 뽑은 독서들과 그 사이에 오는 노래로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강론, 신앙고백, 보편지향 기도는 이 중심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완결한다. 독서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구속과 구원의 신비를 열어 보이시며 영적 양식을 주신다. 강론은 봉독한 말씀을 해설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 가운데 실제로 현존하신다.”

이렇듯 말씀 전례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과거로만 한정 짓는 “회상”의 차원이 아닌, 지금을 살 있는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토대로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례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찬례를 위한 단계가 아닌 말씀 자체만으로도 구체적인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사 안에서 말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으며 힘이 있고, 신앙생활의 활력이 되며 나아가 신앙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전례를 통해 받은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방향을 알려주기에, 우리는 말씀 없이는 구원의 빛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전례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현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실현합니다. 곧, 이러한 활동은 인간에 대한 성부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 전례 부분에 있어서 독서는 성경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57항에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책도 하느님 말씀을 대신해서 읽을 수 없다.>라고 제시함으로써 말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말씀 전례는 미사에 참석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이끌어주고, 일상 속에서 멀어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말씀 전례의 목적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 안에서 완성됩니다.



알아드립니다

※ 사순1주일 강론 요약

이번 주일의 말씀은 인간의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줍니다.

1. 인간의 정체성 : 흠이지만 하느님의 숨을 받은 존재

하느님께서 인간을 흠으로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생기를 지닌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엄은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2. 죄의 시작 : 의심과 교만

죄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뱀은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며 인간이 스스로 기준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하느님 없이도 괜찮다”는 교만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수치심과 관계의 단절을 낳습니다. 인간은 숨고, 변명하며,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3. 아담과 그리스도 : 불순종과 순종

바로 사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과 의로움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죄가 시작된 자리에서 은총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4. 광야의 유혹 : 우리의 이야기

예수님은 광야에서 빵, 기적, 권력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아담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삶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유혹과 싸우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지탱합니다.

5. 희망의 메시지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더욱 충만히 내렸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은총을 받은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의심 대신 신뢰를, 숨을 대신 하느님께 나아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과 영원을 결정합니다. 하느님은 물과 불, 생명과 죽음의 선택을 놓으시며, 성령을 통해 그 길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